

변화무쌍한 양 다이드 김영

흰 바탕에 신선한 빨강, 황색, 녹색, 청색 등의 체크 블라우스라던가 원피스의 자태는 발랄하게 보인다. 요즘은 스트레치사를 이용하여 주로 슬랙스용으로 제조하고 있다. 주로 면단사를 사용하지만 면/폴리에스터 혼방서, 100%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변수는 면사와 면/폴리에스터 혼방사는 주로 20's 30's 35's, 40's, 45's, 50's, 60's 등을,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은 70d, 75d, 100d, 110d, 150d, 200d 등의 굵기의 색사와 표백사를 경위사 방향에 대하여 체크(우물 정 자 또는 창호 문창살 같이 나타나 보이는 모양)로 짜 넣은 것이 김영 체크이다. 대체로 평직물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능직, 주자직을 배합하기도 한다.

김영은 경사와 위사의 올 수의 합계가 90~180올 정도이다. 국내의 규격으로는 방적사 직물로는 8070, 100 70, 110 70 등이 있고 스트레치사를 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웨이, 나일론 투웨이 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김영이라고 하면 작은 체크를 연상할 정도로 격자 무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격자 무늬는 김영 체크라고도 한다. 김영에는 경사방향으로 달리 봉호를 이루는 스트라이프도 있어 이것을 스트라이프 김영이라고 한다. 김영의 무늬에는 이들 이외에도 코드가 들어간(굵은 실로써 포면에 이랑을 만들고 있다) 것이라던가 작고 단순한 무늬를 짜 넣는 것도 있다. 전자를 勾配김영 후자를 도비김영이라고 한다. 김영이라고 하면 흰 바탕이 일반적이지만 바닥 색이 흙색인 것도 있다. 이것을 어스김영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전중남이 창안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흙색이 패션칼라로써 인기를 얻던 시대에 추동용으로 사용되고 흰 바탕의 김영은 춘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다. 근자에는 셔츠뿐만 아니라 슬랙스, 재킷 등에도 스트레치사를 활용한 폴리에스터 런웨이, 나일론 투웨이 등의 김영 원단을 이용하고 있다.

1) 줄무늬(stripe)

직물이나 편물의 표면에 가로, 세로, 사선방향으로 직선이나 곡선을 평행하게 나타낸 무늬, 또는 교차되게 배열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경사방향과 위사방향의 두 방향으로 줄무늬를 동시에 나타내어 무늬가 교차된 것을 특히 체크무늬라 하여 줄무늬와 구별한다. 직물의 줄무늬에 나타내는 방법, 염색된 실을 써서 줄무늬를 나타내는 방법, 후염하여 줄무늬를 나타내는 방법 등이 있다.

줄무늬는 직물이 창시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무늬로서 모든 민족에게 이용되었으며 나라마다 고대부터 독립된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평행선의 넓이와 색채의 섬세한 조합방법에 따라 줄무늬는 변화가 풍부한 효과를 나타낸다. 줄무늬효과는 색실의 배열방법이나 배열간격, 바탕조직의 종류 및 색실과 바탕 조직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색실을 이용하여 줄무늬를 나타내는 경우 경사방향 줄무늬는 정경 할 때 미리 줄무늬에 알맞게 경사 준비를 해야 하지만, 위사방향 줄무늬는 제직 도중에 자유롭게 색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생산면에서 보면 위사방향 줄무늬를 쉽게 제직 할 수 있다.

2) 킁킁(gingham)

선염면포로서 염색사와 표백사를 사용하여 세로줄무늬 혹은 격자무늬를 짜낸 얇은 것이다. 인조섬유를 사용한 것도 있다. 킁킁이라는 명칭은 세로줄무늬를 가리키는 말레이어 “깡안(gingan)”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인도의 수직포를 프랑스의 “갱강(Guingamp)” 지방에서 모방하여 짜냈기 때문에 지명이 그대로 직물 명이 되었다고 하는 2가지 설이 있다.

조직은 평조직으로 하고, 경사와 위사에 20's, 30's, 40's 등의 면단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대부분은 여름용 여성 옷감, 어린이 옷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염색견뢰도가 요구된다.

격조라고 하는 말은 죽어버린 단어 또는 out of fashion은 아닐까라고 생각 해버리는 오늘날 양모 옷감의 격조 또는 색상 무늬라고 하면 British Traditional Pattern을 말한다. 줄무늬라고 하면 경사 스트라이프의 굵기가 머리 카락 한 올만큼 가는 가로 줄무늬인 헤어 스트라이프, 연필로 그은 선 정도의 굵기로 그은 펜슬 스트라이프, 선이 가늘게 보이는 초크 스트라이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섬세한 헤어 스트라이프는 여성 전용으로 여성 무늬이다. 흑색이라던가 물색 바탕에 색사 한 올만으로도 좋다. 줄무늬 간격은 1~1.5cm 정도가 아니면 줄무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것은 슈트 무늬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펜슬 스트라이프는 물색 바탕에 흰색 색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검정색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품위가 떨어지고 강한 힘이 있어 보여 갱 스트라이프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남녀 공통으로 사용하는 슈트 전용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초크 스트라이프는 어렵פות한 부드러운 감이 있는 슈트 전용의 무늬로써 이러한 스트라이프로 만든 슈트의 모습은 클래식한 감을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레이나 갈색 바탕에 흰색이 좋다. 그런데 세로 스트라이프의 무늬는 굵기와 간격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펜슬 스트라이프는 1~1.5cm 정도, 초크 스트라이프는 1.5~2.0cm 정도가 가장 좋다. 스트라이프의 배열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좁게 하기도 하고 너무 넓게 하기도 하면 촌스러운 외관으로 품위가 떨어지게 된다. 제작 설계에 있어서는 실물대의 크기로 그려보고 색칠하여 보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알루미늄을 진공증착(도금)시킨 절박이 많고 황색으로 착색한 필름은 금색으로 무착색한 필름은 은색으로 빛난다. 이것을 재단하여 금사, 은사로 써 사용한다. 절박은 세탁에도 튼튼하다.

라메사는 금, 은색이 일반적이지만 이 외에도 색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

유희라던가 기분 좋게 라메 패션을 하고 즐기는 여성도 늘고 있다. 이브닝 드레스를 시발로 하는 드레시한 드레스, 블라우스, 스카프, 장식 갓두리, 장식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